

## 조선백자에 나타난 외래요소

박혜선, 305호 분청사기·백자실 18:00~18:30

조선백자는 고령토(Kaolin)라 불리는 고운 백토로 형태를 빚고 문양을 장식한 후 유약을 입혀 1,250~1,300℃ 이상의 고온에서 환원번조(還元燔造)한 치밀한 도자기입니다. 조선은 예와 의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국가였기에 국가 의례 등에 사용하는 기물들을 통해서도 왕실의 권위와 명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왕실에서는 15세기 후반 경 사옹원(司饗院) 분원(分院)이라는 관영 가마를 설치하여 수준 높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관요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 도마리 가마터에서는 청화 안료를 테스트한 시험번조 편이 출토되기도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도자기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의례와 격식에 맞추고자 노력했던 왕실백자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컨대, 문인취향의 산수문양이 유행하기도 하고 장수와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길상무늬가 주를 이루는 장식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을 통해 들어온 외래 요소가 가미된 문양이나 새로운 기형의 도자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유리병을 방제한 기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백자 사각병(四角瓶)을 들 수 있습니다.

백자 사각병을 처음 만든 곳은 이웃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백자 사각병은 중국의 유럽 수출용 자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을 선두로 중국에 진출한 유럽은 초기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기를 그대로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그림1. 백자 사각병,  
조선 19세기, 본관 8099



그림2. 백자청채육각병,  
조선 19세기, 덕수 1494



그림3. 백자청화접시,  
조선 19세기, 본관 10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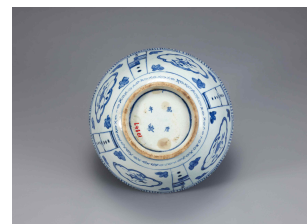


그림4. 백자청화발,  
조선 19세기, 본관 10947

그러나, 점차 그들의 취향에 맞는 도자기를 만들어달라고 중국에 주문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회화 작품 속에는 유리제 사각병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의 일상생활 용기인 유리병을 방제한 도자기 제작을 의뢰한 것이 백자 사각병의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말청초의 해금령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유럽 수출용 도자 제작의 주체가 일본으로 이동하였고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조선에서도 백자 사각병이 제작되었습니다.

## 조선시대 불화에 사용된 채색안료

고수린, 203호 불교회화실 18:00~18:30

화려한 색상으로 채색된 서화 유물을 볼 때면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먼 옛날에는 자연에서 쉽게 채취하여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색 재료들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천연 재료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다채로운 색상의 안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합성 안료는 대체적으로 천연 무기안료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거나 사용방법이 간편합니다. 또한, 값 비싼 천연 안료의 대체품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합성 안료는 제작 시기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어서 특정 안료의 검출로 유물이 제작된 시기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불교회화실에 전시된 조선 후기 승려 화가 '신겸'이 그린 '시왕도'에서도 이런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몰트(smalt)라는 청색 안료는 16세기 중반 유럽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는 코발트(Co)의 합성 산화물로, 코발트, 규소(Si), 포타쉬(K), 비소(As)와 같은 원소들이 주성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청'으로 불리며 17-19세기 조선 중기 이후의 회화 및 단청에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왕도의 분석에서 회청 안료가 검출되어 해당 유물의 제작시기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료의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재료를 구성하는 성분을 알기 위해서 유물에서 미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엑스선형광분석법(XRF: X-Ray Fluorescence)으로 파괴하지 않고도 대상을 분석합니다. 또한 포인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초분광(HSI: Hyper Spectral Imaging)장비를 사용하여 서화 전체를 파장별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1. 스몰트 안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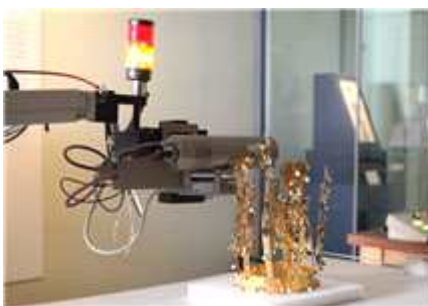


그림2. 엑스선형광분석



그림3. 초분광

제71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2월 8일)

## 책으로 만나는 박물관

서인혁, 209호 기증I실 19:00~19:30

작년 12월 새롭게 개편된 기증관 기증I실에는 손기정 선생이 기증한 청동 투구를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이 투구는 눈과 입을 제외한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코린트식 투구로 서양 유물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 출판물이라고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전시도록을 생각합니다. 전시를 충실히 담은 사진과 글로 구성된 전시도록은 그 자체로 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도록에서는 이 청동 투구가 그리스 기원전 6세기 것으로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였던 손기정 선생이 받아야 할 부상이었으나 당시에는 손기정 선수에게 이 투구가 수여되지 않았고 1986년에 뒤늦게 손기정 선생이 반환받아 이를 기증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박물관신문』 제277호의 기사에서 1994년 8월 8일 기증식에서 손기정 선생이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투구를 전달하는 사진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신문』은 1970년 7월 창간 이후 50여년의 국립박물관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온 국립박물관의 사외보로 전국 곳곳의 발굴이야기와 연구, 문화재와 전시, 그리고 박물관 사람들의 생각이 녹아든 간행물이며, 박물관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오늘의 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박물관의 사료입니다. 기증I실에 새로 마련된 아카이브 공간에는 『박물관신문』 검색대를 통해 기증자와 기증문화재를 비롯해 기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디지털자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박물관은 한계가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넘고 역사와 문화를 담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같은 유물을 마주하고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작년 8월 출판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에세이 『박물관을 걸으며 생각한 것들』에서는 유물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 투구에 대해 한 개인이자 관람객의 시선으로 투구의 주인이 전쟁터에서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하며 유물에 다가갑니다.



그림. 손기정 기증 청동 투구



## 서화의 제작 기법

장연희, 201호 서화 I 실 19:00~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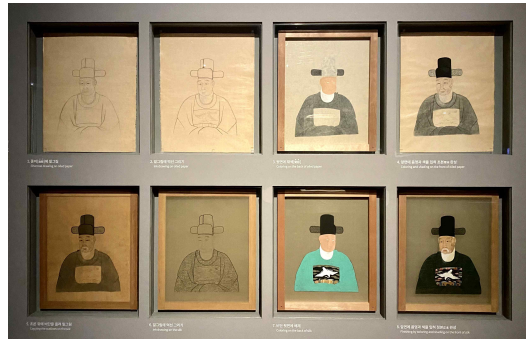
### 1. 서화(書畵)

서화(서예와 회화)는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과 마음을 획(획)과 면·색채·문자 등으로 표현한 고도의 예술로 오랜기간 보존되고 감상되어 왔습니다.

### 2. 서화의 제작

#### (1) 초본의 제작

초본이란 작품을 구상하여 그리는 밑그림으로 기름종이(유지油紙)가 사용되었습니다. 반복 제작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범본範本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정본正本에 준하는 완벽한 작품으로 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 (2) 장황

서화를 오래도록 감상하고 보관하기 위해 서화를 주변을 꾸며주는 것을 뜻합니다. 서화 뒷면에 종이를 덧대어 배접을 하고 사방 가장자리를 종이나 직물로 둘러 족자병풍·첩·두루마리 등의 형태로 꾸미게 되며 이를 ‘장황’ 이라고 합니다.

